

# 이대통령 中 국빈 방문…오늘 시진핑과 비핵화·한한령 논의

3박 4일 일정 문 대통령 이후 6년만…APEC 이어 두번째 정상회담  
서해 구조물 문제 등 해법 도출 주목…리창 등 면담 경제 협력안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후(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도착하며 3박 4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에 본격 돌입했다.

한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지난 2019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6년여 만이며, 국빈 방문은 2017년 12월 이후 8년여 만이다.

이날 공군 1호기에서 내린 이 대통령은 검은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맨으며, 김혜경 여사는 짙은 푸른색 코트 차림으로 환한 미소와 함께 손을 훔들어 인사했다.

영접에는 인허권 중국 과학기술부장과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부부, 노재현 주중대사 등이 나왔으며, 화동들이 꽃다발을 전달하며 이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환송장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 여권 핵심 인사들과 평군 주한중국 대사 대리가 나와 배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현지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고 동포 사회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것으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방문의 하이라이트는 이튿날인 5일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이다. 지난 11월 경주 APEC 정상회의 이후 두 달 만에 열리

는 두 번째 회담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역내 안보 정세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양국 관계 복원의 걸림돌로 지적되어 온 '한한령(한류 제한령)' 완화와 서해 구조물 문제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해법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되도록 전략적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최근 중국 CCTV 인터뷰를 통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에 대한 중국 측의 호응도 관심사다.

정상회담과 맞물려 10여 건의 양해각서(MOU) 체결과 국빈 만찬이 진행되며, 이 대통령은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해 경제 협력을 독려할 예정이다.

방중 사흘째인 6일에는 중국 경제 사령탑인 리창 국무원 총리와 오찬을 갖고 구체적인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자오리지 전인대 상무위원회장과도 면담한다.

마지막 날인 7일에는 상하이로 이동해 천진당 서기와의 만찬, 벤처 스타트업 서밋 참석 일정을 소화한 뒤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방문을 끝으로 귀국길에 오른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중국을 국빈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4일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한 공군1호기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미, 베네수엘라 한밤 기습작전…트럼프 “사살도 고려”

### 마두로 동선 파악 수개월간 치밀한 준비…항공기 150대 출격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3일(현지시간)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수개월 전부터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하고 예행 연습을 하는 등 기습 작전을 철저히 준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은 이날 폴로리다주 마리라고와의 트럼프 대통령 저택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확고한 결의' (Operation Absolute Resolve)로 명명된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을 브리핑했다.

케인 합참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 동부시간으로 2일 밤 10시 46분에 작전 개시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작전 개시 직전인 전날 마리라고 리조트 인근 레이크워스의 쇼핑센터를 방문해 백악관 연회장 공사에 쓰일 대리석 등 건축자재를 사재로 구입한 뒤, 마리라고 테라스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서 그날 밤 10시 46분 최종 작전 개시 명령을 내렸다.

이에 서반구에 있는 20개의 지상·해상 기지에서

150대가 넘는 항공기가 베네수엘라를 향해 출격했다. 해병, 해군, 공군, 주방위군 소속의 F-22, F-35, F-18 등 전투기, EA-18 전자전기, E-2 조기경보기, B-1 폭격기, 지원기, 다수의 원격 조종 무인기가 동원됐다.

마두로 대통령 체포를 담당한 병력을 태운 헬리콥터들은 탑재를 피하기 위해 목표까지 수면 100ft(약 30m) 위로 저고도 비행했다.

제160 특수작전항공연대는 2011년 오바마 빙 라멘 암살 작전 당시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을 파키스탄으로 실어 날랐으며 치누크와 블랙호크 헬리콥터 등을 사용한다.

케인 의장은 항공 전력이 베네수엘라 카리카스에 접근하면서 헬리콥터와 지상군의 안전한 이동 경로를 확보하고 임무하기 위해 베네수엘라의 방공 체계를 무력화했다면서 작전이 "완전한 기습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번 작전은 작년 성탄절에 승인이 났으나 날씨 탓에 연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12월 25일부터 미군이 작

전을 할 수 있도록 승인했지만, 정확한 실행 시점은 공격 부대의 준비 상태와 현지 여건이 최적일 때를 보장하기 위해 국방부 관계자들과 특수작전 기획자들에게 맡겼다.

미군은 공무원과 군인 다수가 휴가를 가는 연말 연휴 기간을 노렸으나 악천후로 작전이 며칠 연기됐고, 이후 날씨가 호전되자 최종 검토를 거쳐 실행 시기를 낙점했다.

한 당국자는 "날씨가 개지 않았으면 작전이 1월 중순까지도 연기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20년 3월 미야 밴 라멘 암살 작전 당시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을 파키스탄으로 실어 날랐으며 치누크와 블랙호크 헬리콥터 등을 사용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마두로 대통령이 단단한 강철로 둘러싸인 안카로 피신하려고 했지만, 미군이 신속하게 행동해 그려지 못했다면서 "그는 문까지는 갔지만 문을 닫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이 저항할 경우 사살까지 고려했나는 질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다"면서 많은 저항과 총격이 있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 한국 “베네수엘라 국민 의사 존중” 신증모드

정부가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및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 사태와 관련, 민주주의 회복과 안정을 강조하며 신증한 입장을 표명했다.

외교부는 4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베네수엘라

국민의 의사가 존중되는 가운데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대화를 통해 상황이 조속히 안정되기를 희망한다"며 "모든 당사자가 역내 긴장 완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논평은 미국의 군사 작전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나 국제법 위반 논란에 대한 언급 없이 원론적인 차원에서 민주적 절차와 평화를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6만%에 달하는 살인적인 물가 상승과 부정선거 논란 등으로 정통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마두로 정권에 대한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알선이란?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금융감독원  
National Financial Services

h-well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생명보험협회  
Korea Life Insurance Association

손해보험협회  
Korean Insurance Association

IGRAF 보험GA협회  
Insurance General Agents Association of Korea